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3년 1월 6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 기획팀장 이규석 ☎440-2131 • 담 당 자 김인경 ☎440-2134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도 세계 초일류도시 구성에 한 뜻

- 유정복 시장, 9일부터 공사·공단 등 7개 기관 방문해 신년 업무보고 예정 -
- 현장 소통, 시와 원팀 되어 시민 행복지수 높일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주문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연말 각 실·국별로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산하 기관들의 올해 사업계획을 살핀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1월 9일부터 유정복 시장이 공사·공단 등 시 산하 7개 공공기관을 방문해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유정복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며, 공사·공단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주요 현안 사항과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일정은 9일 인천교통공사, 11일 인천관광공사, 12일 인천테크노파크, 13일 인천연구원, 인천시설공단, 17일 인천환경공단, 18일 인천도시공사 순이다.

인천시는 이번 공사·공단 등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시의 시정운영방향을 알리고 시와 공사·공단 간 긴밀한 협력과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민선 8기의 정책들이 본격화되는 해인 만큼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는 민선 8기 시민이 행복한 정책 실현의 첫해인 만큼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사·공단 등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현안들을 현장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인천시의 일원으로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원팀이 되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